

전남도 친환경농업에 1342억 투입

유기농 중심 내실화...직불제 등 3개 사업 155억·생산비 절감사업 664억 투자

전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과 소득 증대 사업에 농업생산 분야 총사업비(5746억원)의 23%인 1342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과수·채소 품목 인증면적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다.

사업별로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줄어들 수 있는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55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276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159억원 등 7개 사업에 664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334억원, 유기농 생태미를 육성 10억원,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10억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70억원 등 기반 조성 사업에는 49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해당 지원 단가를 10만원씩 상향해 과수 160만원·채소 140만원을 지원하고 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 비가림 하우스 예산 7억원도 배정했다.

보성·담양·영암에 있는 친환경농업 교육관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 친환경과수·채소 재배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유기농 명인 등을 대상으로 과수·채소 유기농업 선진국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해 유기농 과수·채소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벼 이외의 작물 점유율을 현재 27%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농식품 소비·체험·교육·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단지 조성 사업비도 180억원을 국비 신규 사업으로 확보했다.

전남도는 장기전락으로 친환경농업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3340ha로 전국의 55%를 차지한다”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환경 전반에 대한 육성 정책을 구상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전방 GOP 휴대폰 사용 내달부터 전면 확대

최전방 GOP(일반전조)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일부 GOP 부대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모든 부대로 전면 확대된다.

육군은 17일 최전방 GOP 부대에서 지난 1월 14일부터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의 25사단(상승비룡사단) GOP 부대는 지난 13일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GOP 근무 병사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일반부대 병사들은 오후 6시부터 사용하지만, GOP 부대는 교대근무 시간 등을 고려해 30분 일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이 역시 교대근무 등을 고려해 타 부대보다 사용 시간을 1시간 늘렸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4년8개월만에 철거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옮기고 있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후 약 4년 8개월 만에 유가족 측의 자진철거 의사에 따라 18일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북미 팽팽한 신경전...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틀 만들어야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 하노이)이 대화의 여지만 남겨놓은 채 합의 문 없이 막을 내린 지 보름이 훌쩍 넘었지만, 북한과 미국은 구체적인 대화 재개 움직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한 이후 일괄타격식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민수용 재제 다섯건 해제’ 방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맞서고 있다.

북한이 최섉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지

난 15일 평양 주재 외신 기자 및 외국 외교관들 대상 긴급 회견을 개최한 이후, 이대로 가다간 북미관계가 또 한차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 부상은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보여줬음에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계속할지, 핵·미사일 시험유예를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판’을 깨려는 태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최 부

상도 지난 15일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 부장 회견과 관련,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결국 북미 양측이 대화할 생각이 갖고 있지만, 양보할 생각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을 상대면 코트로 넘기려고만 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괄 타격’을 들고 있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들고 있는 북한이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점은 ‘포괄적 합의와 그것의 단계적 이행’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우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포함하는 최종단계 비핵화 조치와 그 대가로 미국이 제공할 북미수고, 제재해제, 평화협정 등을 담은 포괄적 공정표를 만들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한다는 제안이다.

북미간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우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일거에 폐기할 수는 없다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단계 모습을 모른 채 북한이 하고자 하는 조치만 취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미국이 상호 접점을 찾으려면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합평 이전 속도

전남도와 MOU 체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합평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도청 정약홍실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이운행 합평군수,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합평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합평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 지역민과의 갈등 조정 및 지원 대책, 주변 방역대책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전남도, 합평군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는 합평군에서 자체 용역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신중해 이뤄졌다. 축산연구, 육초종자 개발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018년 11월 합평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전 대상지는 합평 신평면 일원 612ha다.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 개량, 초지·사료, 스마트축산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가

축개량평가과, 낙농과, 양돈과, 초지·사료과, 4개 부서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젖소 300마리, 돼지 1000 마리를 시험연구용으로 사육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합평군은 축산자원개발부 직원 202명이주 및 매년 200억 원의 지역경제 기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남 축산농가와 협업·연구를 통한 맞춤형 축산 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물품의 우선 구매 등 상호 윈윈하는 상생모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하면 가축 개량으로 한우 등 가축의 자질 향상, 남방형 목초종자 개발을 통한 산지초지 조성 확대, 반려동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반려동물 기초연구, 동물의 체세포 복제 연구 및 장기 이식용 돼지 연구기관 구축 등 합평이 새로운 미래축산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을 위해 2019년 이전 비용 산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2021년 예산을 확보해 2022년부터 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지난해보다 300억원 늘린 1193억원·4만명 지원

전남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1193억원을 투입해 4만명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는 300억원, 일자리는 7000개가 늘어난 것이다.

전남도는 올 한해 지난해보다 7000개가 늘어난 4만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어르신에게 제공한다고 공할 북미수고, 제재해제, 평화협정 등을 담은 포괄적 공정표를 만들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한다는 제안이다.

북미간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우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일거에 폐기할 수는 없다는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단계 모습을 모른 채 북한이 하고자 하는 조치만 취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미국이 상호 접점을 찾으려면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출할 계획이다.

매주 만들기, 농산물 공동생산 등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30여 개소로 확대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기존 6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시설·장비비, 임차료 등 초기투자비 3000만 원씩을 지원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환주 전남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4고(苦)인 빈곤·고독·질병·무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야 - 땅

바로잡니다.010-6834-7400

단독식/지분물건 환영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 강 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골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

(재)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9 - 10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장채용공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천연자원연구센터를 이끌어 갈 유능한 센터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천연자원연구센터장 나. 채용인원 : 1명

2 응모자격
가. 공통자격 요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 기타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f.kr) 공고문 참조
나. 기본자격 요건(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생물 관련분야 전공으로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상당직 포함) 이상으로 투자유치 또는 생물산업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있는 사람
③ 생물산업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사업체의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채용형태 및 보수수준
가. 채용형태 : 전일계약직(2년 계약) * 경쟁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두차례 연임 가능
나. 보수수준 : 경력 등을 감안 협의조정

4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력, 관련분야 실적, 리더십,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심사·평가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PPT로 발표 10분 내외)
* 센터 운영 방안, 센터장으로서의 자질, 문제해결 능력, 직무수행계획 및 사업추진 능력,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평가 점수는 면접전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5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기간 : 2019. 3. 25. (월) 18:00까지
2) 장 소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82875 전남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3)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1차(서류심사) : 2019. 3. 28. (목) * 합격자 개별 통지
다. 2차(면접심사) : 2019. 4. 3. (수) * 합격자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f.kr) 공고문 참조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자가 1명일 경우 재공고 절차를 추진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1차·서류심사 합격자 포함)는 전좌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라.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행정지원실(061-339-1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 2019-4호

서망 활선이 위판장 중도매인 모집공고

당 조합 서망사업소 활선어 위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 다 음 -

모 집 인 원 00명 모 집 기 간 연중모집

모집위판장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활선어 위판장)

자 격

1) 담보제공 능력자 및 보증금 오천만원이상 납부 가능한 자

2) 활선어 취급자 및 유통업자

3) 당 조합 제 규정 및 중도매인 거래약정서를 준수할 수 있는 자

4)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3개월 이내 규제된 사실이 없는 자

제 출 서 류

1) 가입신청서 및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조합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3)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각 1부

* 자산과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당 조합에서 인정하는 보증인

7)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8) 담보제공자는 물건목록 등기부등본 1부

단, 대리인을 두고자 할 때 - 중도매인 대리인 승인신청서 (조합 소정양식) 및 5. 제출서류 2)~7)

* 법인 중도매인 가입의 경우 제출서류는 당사업소에 문의바랍니다.

접 수 처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서망사업소(☎ 061-544-29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장